

■ 괴운(槐雲) 칼럼



비단과 걸레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어느 친구가 보내준, 다양한 인맥과 인간관계에 참고할 '비단과 걸레'에 알아본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걸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지만 '비단'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은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소매 끝만 스친 인연도 그것을 살릴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배움을 얻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파블로 피카소' 둘 중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인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는 명백합니다.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좌절을 거듭하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카소는 생전에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대접받으며 부유와 풍요 속에서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화가의 인생을 갈라 놓았을까요?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영학자들은 '인맥의 차이'를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고흐는 사후에 피카소를 능가할 만큼 크게 이름을 떨친 화가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걸작들이 피카소의 그림보다 값이 더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고난 뒤의 성공이 살아생전의 성공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9시까지가 봄, 9시부터 13시까지는 여름, 13시부터 17시까지는 가을, 17시부터 21시까지는 겨울입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는 두 가지 일을 못하는 단일성이 있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성이 있으며, 오늘이 나의 생일이라면 다음 해에 또 나의 생일이 돌아오는 연일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구성 요소가 있고, 시간과 공간은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괴로를 떠나 어려울 때 함께 토로할 수 있고, 갑자기 전화하거나 찾아볼 수도 있으며,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는 성격의 단점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 경전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붕(朋)'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붕(朋)은 우(友)하고는 다릅니다. 진정한 벗인 '붕'이 되려면, 첫째, 나이를 따지지 않고(長), 둘째,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며(貴), 셋째, 집안의 배경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예비 리더들이 참조해야 할 인맥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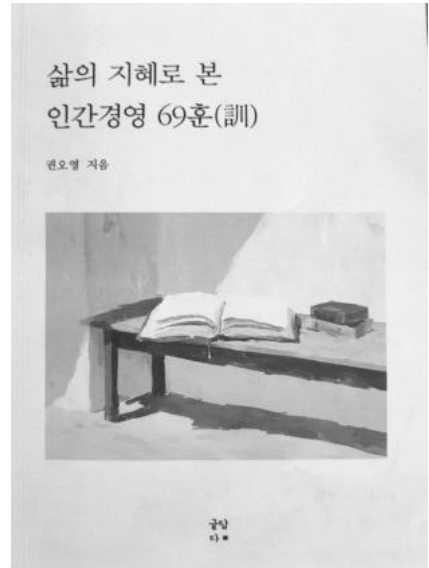
1. 직업적 인맥 (operational network), 2.개인적 인맥 (personal network) 3. 전략적 인맥 (strategic network)입니다. '직업적 인맥' 구축은 '깊이'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 '사적 인맥' 구축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넓게' 하며, '전략적 인맥'구축은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훌륭한 인맥의 3가지 장점은 1.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2.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수 있으며, 3. 인맥은 일종의 권력입니다.

한 번 받기도 힘든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경우, 화학상과 평화상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의 '창조적 성공'은 탁월한 두뇌가 아니라, 깊고 다양한 인맥, 균형적인 인맥의 결과입니다. 결국, '비단' 같은 사람보다는 '걸레' 같은 사람이 더 소중하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삶의 지혜로 본 인간경영 69훈(訓)

권영



이 책은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최고의 날)로 시작한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년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년 모여 1년이 된다. 또한 오늘이 3만 번 정도 모이면 일생이 된다. 그 오늘이라는 첫날에 리허설이란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저자는 책의 마지막 주제도 희망의 기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란 어떤 일이 있을 때 노력을 통해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오늘 하루를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좀 더 나아져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서 타산지석과 반면교사 하는 마음을 거울삼아 생생한 삶의 지혜로 본 인간경영 69훈(訓)을 모았다고 술회한다.

정근모 KAIST 석좌교수이자 전 과학기술 장관은 추천의 글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탐욕과 다름, 부도덕과 불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삶의 풍성함과 미래에 대한 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독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하며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오디세이아(Odysseia)〉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항해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The Odyssey)〉가 인기를 끌고 있다. 덕분에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Homeros)의 서사시 〈오디세이아(Odysseia)〉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오디세이아〉는 도대체 어떤 작품이며,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가?

우선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750년경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Odysseus)의 모험과 역경을 다룬 영웅서사시이다.

자신의 ‘이름’ 혹은 정체성 찾기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바다의 요정 칼립소(Calypso)의 오기기아(Ogygia) 섬에서 7년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고향 이타카에 가고 싶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제우스에게 간청하여 칼립소에게 헤르메스를 보내 오디세우스를 풀어주도록 한 것이다. 오디세우스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유배되어 바다를 떠돌며 술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셈이다.

결국 칼립소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에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불사(不死)의 몸이 되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다. 분명 오기기아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낙원이었다. 그럼에도 오디세우스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집에 돌아가서 귀향의 날을 보기를 날마다 원하고 바란다오.”(6권)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칼립소의 도움으로 뱃목을 만들어 오기기아 섬을 떠났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포세이돈을 만나 거센 폭풍우로 다시 난파되는 지경에 처한다. 하지만 나우시카 공주의 도움으로 피아아케스족의 나라에 들어가 알키노오스 왕의 초대를 받는다. 그런데 가인(敎人) 데모도코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킨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자 알키노오스 왕은 “그대의 이름을 말해주시오.”라며 요청해 결국 오디세우스는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 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9권)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다가 드디어 밝힌 것이다. 그리고 자



활을 당겨 12개의 도끼 구멍 사이로 화살을 쏘아 맞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구혼자들은 아무도 활시위조차 당기지 못한다. 이때 거지 행색의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너무나도 쉽게 활을 당겨 과녁을 명중시킨다.

바로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고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든 채 문턱 위로 뛰어 올라가 바로 그곳에서 자기 발 앞에 날랜 화살들을 쏘더니 구혼자들 사이에서 말했다.”(22권) 한다. 그리곤 문을 잠근 뒤 텔레마코스, 소치기 필로티오스, 에우마이오스와 함께 108명의 구혼자들을 모조리 처단하여 피의 복수를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재회한다.

〈오디세이아〉는 첫 문장에서 “들려주소서, 무사여신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라며 오디세우스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하지만 술한 모험과 역경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름, 곧 정체성을 찾게 된다. 때로는 이름 때문에 곤경에 처하기는 했어도 불사의 신이 아닌 필멸의 인간 ‘라에스테르의 아들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아말로 자신의 정체성이기에 소중하다. 〈오디세이아〉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역경과 모험의 항해인 셈이다.

서울지역총친회 사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헌릉은 조선왕조 제3대 태종대왕과 왕후의 릉이며, 인릉은 제23대 순조대왕과 왕후의 합장릉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기에 총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6년 9월 13일(일요일) 11시
♣장 소 : 서울 서초구 현.인릉
♣교 통 : 전철 3호선 양재역 8번 출구 집결
버스 452.741번 이용 현인마을 하차 20분 소요

◆연락처
회 장 : 권영복 010-2456-6865
사무국장 : 권순휘 010-3797-1874
총 무 :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총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65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5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 시 : 2026년 9월 20일(일) 10시(시간엄수)
♣ 집합장소 : 1.7호선 도봉산역 2번 출구 창포원 입구
♣ 산 행 지 : 수락산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 회 장 권경탁 : 010-3796-4047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중우 : 010-5418-4299

2026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경탁

2026年 9月 宗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7.30. ~ 8.27. 총 납부자 15명 총 880,000원

(이름순)

권국림(전북 군산) 30,000	권성호(경북 예천) 30,000	권오기(경북 안동) 30,000	권재영(경북 안동) 30,000	권혁열(강원 강릉) 30,000
권기창(경북 안동) 30,000	권순관(대구 구성) 30,000	권오범(서울 노원) 30,000	권종웅(대구 달서) 30,000	권혁열(충북 음성) 30,000
권기창(경북 안동) 30,000	권순늬(경북 안동) 30,000	권오성(서울 강남) 30,000	권종길(경북 포항) 30,000	권혁용(강원 강릉) 30,000

* 연간 총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중회 사무처
▶전화번호 : 02-2695-2483~4 ▶FAX: 02-2695-2485

◆임원회비 입금 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